

◆ 會員社 動靜 ◆

金星産電(株), 福祉館 건립

사원 복지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金星産電(株)(代表 : 李喜鍾)는 경기도 오산공장내에 메머드복지관을 건립키로 했다.

이번 오산공장내 복지관 건립은 금성산전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원 복리향상 계획의 일환으로 1차로 작년 9월 창원공장 복지관 기공에 이은 것으로 지상 2층에 연건평 984평 규모이며 총 공사 금액 30억원을 투입해 오는 '94년 10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이 복지관이 완공하게 되며 지상 1층은 사원식당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2층은 타지역 출신의 남여 사원들의 기숙사로 숙소 및 휴게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로서 오는 10월 금성산전의 창원 및 오산 공장에 종합복지관을 동시에 개관하게 되어 공장 근무자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금성산전은 2개의 공장 복지관 건립에만 총 130억원을 투자하였는데 복지관이 완공되면 결혼을 앞둔 사원들에게 결혼식장으로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연극, 영화, 음악 등의 공연도 개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金星電線(株), 국내 최초로 PC형 광커넥터 국산화

金星電線(株) (代表 : 權炆久)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PC형 광커넥터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광커넥터는 전기신호와 광전송신호를 전환하는 단국장치와 광케이블을 연결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주로 커넥터 접촉면이 평면 가공된 일반 광커넥터를 사용했었다. 그러나 금성전선이 개발한 PC형 (Physical Contact Type) 광커넥터는 접촉면을 구면 연마함으로써 커넥터 연결부분에서 발생하는 반사 손실을 제거한 것이다.

최근 광전송로의 전송 속도가 높아지고 전송되는 신호도 음성뿐 아니라 각종 데이터 신호까지 전송되고 있는데 커넥터 접촉면의 반사 손실로 인해 각종 정보가 왜곡되거나 심지어는 훼손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데서 착안, 금성전선에서는 1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커넥터 접촉면의 반사 손실을 제거할 수 있는 광커넥터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이미 FC/PC형 광커넥터를 개발해 데이콤의 장거리 전송망에 공급한 바 있는 금성전선은 이번 PC형 광커넥터의 국산화를 계기로 향후 광케이블을 통한 고속 정보전송로에 적용될 경우 연간 200만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금성전선은 현재 대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용 광수동소자류를 개발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한 시스템 개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曉星重工業(株), HV-Series 진공차단기 2종 개발

曉星重工業(株) (代表 : 柳鍾烈) FA사업부 영등포공장 계전부는 고압수배전반에 사용되는 새로운 독자 모델의 진공차단기를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하여 기존 외국 기술제휴선의 종속적 위치에서 탈피, 신기술 습득의 새로운 개가를 이루었다.

효성중공업은 한국전력공사 기술개발 자금지원으로 '93년 9월부터 '94년 8월까지 총 6기종을 개발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 2기를 1차적으로 한국전기연구소 개발시험을 마쳤다.

이번에 개발한 진공차단기는 모타에 의해 스프링을 교환시키는 방식으로서 기존 솔레노이드 조작 방식의 차단기보다 고속도 트립 및 차단이 우수하고, 1/10의 제어전원 용량으로도 조작제어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컴팩트한 구조로 소형, 경량의 차단기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차단기 개발은 기술제휴선의 기술도입이나 기술자문없이 순수자체기술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개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 효성중공업 계전부는 24KV, 630A 12.5KV 및 7.2kv 630A 20/25KA, 7.2KV 1250A 20/25KV 및 24KV 630A 25KA도 계속해서 개발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雙龍重工業(株), 필리핀에 소형디젤 발전설비 수출

雙龍重工業(株) (代表 : 金基鎬)가 필리핀에 소형디젤 발전설비를 수출한다.

쌍용중공업은 필리핀의 페이퍼시티사(PAPER CITY CO.)에 3천5백KW급 디젤발전설비 2기를 24억원에 수출키로 하고 최근 선적을 완료했다.

쌍용중공업이 발전플랜트를 해외에 수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설비는 오늘 6월말까지 설치를 완료, 페이퍼시티사의 자가발전설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三星航空産業(株), 모스크바에 첨단연구소 설립

러시아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韓·러 합작연구기지 설립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항공이 모스크바에 첨단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三星航空産業(株) (代表 : 李大遠)은 러시아 모스크바 근교에 위치한 MIPT대학(MOSCOW INSTITUTE OF PHYSICS AND TECHNOLOGY, 1946년 설립한 러시아 최고 권위의 모스크바 물리공과 대학)내에 첨단기술을 연구개발할 연구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연구센터를 갖추고 MIPT 공과대학 개발장비와 연구시설 그리고 1천 3백여명의 박사급 현지연구 인력을 활용, 항공우주는 물론 광전자, 산업기기분야 등의 첨단기술을 연구개발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연구원 숙소도 갖추었다.

이 연구소는 지난해 7월 MIPT 대학부총장의 한국방문시 삼성과의 상호 협력에 대한 가능성이 모색된 이후 삼성측이 연구소 운영경비와 연구사업비를 러시아측은 장비, 시설, 인력 등을 각자 부담하여 설립하게 되었다.

三星航空은 연구소 설립으로 러시아 핵심원천기술의 국내 이전과 항공우주, 광전자, 산기 등 다양한 첨단사업분야의 기술개발을 보다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술정보의 신속한 입수, 상호협력의 시간, 공간적 문제 해결과 국내 연구진의 현지 상시연구활동기지 마련 등 러시아 지역에서 총체적인 연구기반을 확보했다.

삼성항공은 그동안 MIPT 공과대학과 CCD (고체촬상소자)카메라를 이용한 3차원 영상처리 기술을 공동개발해 왔는데 향후 레이저, 플라즈마 등 핵심원천 기술과 소프트웨어 및 핵심 애로기술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寶國電機工業(株), 백령도 자가발전 기자재 공급

寶國電機工業(株) (代表 : 郭鍾寶)가 한전이 발주한 백령도 내연발전소의 기자재를 공급케 된다.

동사는 지난 4월 한전이 발주한 일찰에서 대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벌인끝에 28억원에 수주했다. 이번에 보국전기가 수주한 내연 발전소 설비는 1천5백KW 720RPM 규격의 도서 자가발전 3대로 국내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국전기는 지난달 3월 통영군에 소재한 대물도 추도와 옥구구의 비안도에 80KW 상용발전기 9대를 설치 준공식을 마쳤다.

이와관련 寶國電機는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전기공급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기여 관내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株)東南物産, 安城工場 신축 移轉

送·變·配電用 金具類 전문생산업체인 (株)東南物産(代表 : 李炳均)이 경기도 안성에 공장을 신축, 이전했다.

동남물산이 총 30억원을 들여 지난달 29일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소재 제2 안성공단내 1천8백여평의 부지에 신축한 공장은 2층 철골조의 공장과 사무실 등을 포함해 건평 1천2백50평 규모이다.

동남물산은 이 공장에 대형알루미늄 급속 용해로를 비롯, 모래재생 혼연설비, 알루미늄 및 주물기등 첨단장비를 도입해 연간 30억~40억원에 이르는 변전소용 절연가스차단기 알루미늄 외함(GIS탱크)을 생산할 예정이다.

지난 84년 동남물산상사로 설립된 동남물산은 非철금속 주물 및 알루미늄배선용 인장크래프 생산을 시작으로 현재 알루미늄선용 분기 슬리브 및 분기고리·전선휴즈·1백54KV송전선 등 각종 金具類를 생산, 전량 韓電에 납품하고 있으며 지난 92년에는 전자사업부를 신설해 첨단전자제품 및 자동차부품용 케이블과 연결코드·각종 배선기기도 생산하고 있다.

회원업체 KS 표시허가 획득안내

업 체 명	규격번호	규 격 명	종류, 등급 또 호칭
동신전선(주)	KSC 3131	고압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 3,300V 및 6,600V CV 원형연선 - 단심 : 8-500mm ² - 다심 : 8-200mm ²
	KSC 3611	600V폴리에틸렌 케이블	○ 600V EV 및 CV 원형연선 - 2~200mm ² ×4C
대 성 전 선	KSC 3340	PVC 옥내전화선	PVC 옥내전화선
대 한 전 선	KSC 3340	PVC 옥내전화선	PVC 옥내전화선
삼흥중전기 공 업 (주)	KSC 8330	SF ₆ 절연부하개폐기	SF ₆ 절연부하개폐기

회원사 이전 안내

東信電線(株) (代表 : 李相合)가 서울사무소를 이전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498-2

Tel. (02) 281-8101 · Fax. (02) 281-5339

◆ KOEMA 消息 ◆

“電機工業” 명예기자 신규 위촉

·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회원사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강화, 업계어로 및 건의사항 파악, 진흥회 활동에 대한 비판과 자문등의 활동을 하는 “電機工業” 명예기자제를 실시하고 있는 바, 금번 폭넓은 업체의 참여 및 채널의 다양화를 위해 명예기자를 추가로 14명을 위촉했다.